

신현송, '실용적 매파' 평가 선 그어 "중동發 공급충격 지속시 정책 대응"

한은 총재 후보자 청문회

경제·금융상황 고려 유연한 접근
환율 관련 시장 위험선호 변화 분석
디지털 화폐 등 한은 역할 확대 구상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중동발 공급충격에 대해 "오래 지속돼 기대 인플레이션에 반영되고 근원물가에 반영돼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면 그때는 반드시 통화정책의 역할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의 통화정책 성향을 둘러싼 '실용적 매파' 평가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물가 압력이 2차 확산할 경우 정책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 청문회에 출석한 신 후보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며 "실용적 매파(통화긴축 정책 선호)라는 평가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자신의 언론 인터뷰와 관련해 "그 당시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 봤지만, 항상 같은 상황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제나 금융 상황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현재 물가 흐름에 대해선 중동 사태에 따른 공급충격 가능성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을 먼저 짚었다. 그는 "일단 공급 충격이 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문제는 일시적으로 올라간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충격으로 완화돼 다시 목표치까지 가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격이 오래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전반적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된다"고 했다.

환율 관련 답변에서는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을 단순한 장부상 자본흐름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신 후보자는 "최근 몇 개월 동안 환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 게 사

실"이라며 "구조적인 면도 있고 단기적으로 시장의 위험 선호 변화도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자산을 사는 흐름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도 환율이 이렇게 오른 것을 보면 위험 회피 등 다른 금융채널이 중요한 것 같다"며 "특히 선물환 시장이 아주 중요한 것 같다"고 했다.

특히 그는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의 영향력을 언급하며 "이번에도 한국에서의 NDF 거래가 상당히 큰 몫을 한 것 같다"며 "어떻게 보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현상도 가끔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원화 국제화와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설명한 공식 모두발언의 연장선에서, 환율 변동성 관리의 핵심 채널로 역외·파생시장을 직접 거론한 셈이다.

신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함께 도모하는 유연한 통화정책 운영 방침을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유가·환율 상승에 따른 물가상방압력과 성장 둔화를 동시에 진단했고, 중장기적으로는 원화 국제화와 디지털 화폐 생태계 구축까지 한

의 역할을 넓혀야 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치솟는 분양가에 서울 청약시장 급변 고소득 '추첨제'·실수요 '소형 평형'

자금확보 관건... 청약수요 대거 이동

서울 청약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공급 부족에 자금력을 갖춘 고소득자들이 상급지 추첨제 물량에 대거 몰렸다. 이와 함께 분양가 부담에 실수요자들이 소형 평형으로 눈높이를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홈두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청약홈에 공고된 서울 주요 민영아파트 특별공급데이터를 전수 분석한 결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들어서는 '아크로 드 서초'의 전용면적 59㎡(분양가 18억6000만원)의 생애최초 추첨제 경쟁률이 6710대 1로 가장 높았다. 같은 구 잠원동에 위치한 '오티에르 반포'의 전용 84㎡(분양가 27억5000만원)의 경우 신혼부부 추첨제 물량에서 경쟁률이 1589.5대 1까지 치솟았다.

분양가 수준에 따라 전형별 접수 형태도 같았다.

분양가 8억7000만원(전용 59㎡)인

'해링턴플레이스노원센트럴'의 신혼부부 추첨제 접수율은 9.2%에 불과해 대다수가 자녀 수 등 가점 항목을 통해 당첨을 노렸다. 반면 아크로 드 서초(51.7%)와 오티에르 반포(52.59%) 등 강남 3구에서는 신혼부부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추첨제로 진입했다.

이수빈 홈두부 연구소장은 "고분양가 상급지일수록 고소득 맞벌이 가구와 자산가들이 진입할 수 있는 추첨제 단계에 수요가 집중되며 기록적인 경쟁률을 형성하고 있다"며 "상급지일수록 가점 우위 가구보다 분양가 감당이 가능한 고소득 맞벌이 신혼부부들이 추첨 물량에 대거 포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국민평형'인 전용 84㎡의 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분석대상 모든 단지에서 전용 84㎡보다 낮은 평형의 경쟁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자금 동원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소형 평형으로 대거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상미 기자 smahni@



metro

3월 자동차 수출 63.7억달러... 역대 2위

1분기 수출·내수·생산 고른 성장세

국내자동차산업이 올해 1분기 수출과 내수, 생산 전 분야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이며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특히 하이브리드차를 필두로 한 친환경차의 인기가 수출 실적을 견인하며 3월 수출액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을 달성했다.

15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6년 3월 및 1분기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63억 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3월 실적 기준으로 2023년(65.2억 달러)에 이어 역대 2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1분기(1~3월) 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0.2% 소폭 감소하며 보험세를 나타냈다. 1분기 지역별 수출 흐름도 3월과 유사하다. EU(+14.2%) 등 유럽 시장에서는 선전했으나, 아시아(-38.9%)와 중동(-21.3%) 지역 수출은 큰 폭으

로 꺾였다. 지속되고 있는 중동 전쟁의 여파가 물류 및 소비 심리에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내수 시장 역시 회복세가 뚜렷하다. 3월 내수 판매량은 16.5만 대로 전년 동월 대비 10.2% 증가했다. 1분기 누적 판매량도 40.9만 대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5.3% 성장했다.

수출과 내수의 동반 호조에 힘입어 생산 현장도 활기를 띠고 있다. 3월 생산량은 38.7만 대로 전년 대비 4.5% 늘었으며, 1분기 전체 생산량은 102.6만 대를 기록했다. 이로써 국내 자동차 업계는 4년 연속으로 1분기 생산량 100만 대 돌파라는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생산과 수출 증가세가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metro

구윤철, 美 투자유치 행보... 기관 등 협력 확대

구 부총리, 한국경제 펀더멘탈 소개
"투자절차 보완과제 있다면 신속 개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미국 뉴욕에서 주요 투자기관 등과 면담을 갖고, 한국 정부가 'AI(인공지능) 인프라 및 첨단산업'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내 자본시장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며 국제기관투자자 등과의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15일 재정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1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글로벌 대형 투자기관인 아폴로, 블랙록, 핼프 최고 위 인사들과 각각 양자 면담을 가졌다.

구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탈을 소개했다. 그는 "한국 자본시장의 투자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과 디지털 인프라를 바탕으로 '피지컬 AI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AI 인프라와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국에 새로운 투자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대규모 장기 자본을 보유한 글로벌 투자기관과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대체투자 운용사 아폴로의 마크 로완 회장은 "한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위상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 기관투자자들의 영향력도 확



구윤철(왼쪽 2번째)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블랙록의 최고운영책임자(COO) 립 골드스타인과 면담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AI·데이터 인프라, 에너지 전환, 전력망 등 핵심 전략 분야에서 한국 정부의 정책방향에 공감한다"며 "장기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최고 운영책임자(COO) 립 골드스타인은 "한국의 외환·자본시장 개혁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시장 접근성을 확대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은 개방적이고 회복력 있는 시장으로,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범 사례로서 한국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세계 최대 채권투자기관인 핼프의 존 스티븐스 부회장은 세계국채지수(W

GBI) 편입이 한국 채권시장의 향후 중요한 이정표라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을 장기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WGBI 편입과 관련해 "한국시장의 접근성과 인프라가 선진국 수준임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투자 절차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완 과제가 있다면 신속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뉴욕 소재 주UN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한국 경제 투자설명회(IR)를 주재했다. 이날 현장에는 씨티, 골드만삭스 등 국제투자은행(IB)과 자산운용사 등 13개 주요 금융회사 소속 고위급 임원 등이 참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객관적 시각이 지속가능성 높일 수 있어"

>> 1면 '감사, 조직성장 위해'서 계속

그는 "대외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지금의 세계는 3분의 1은 미국 중심으로 이뤄져있고, 나머지 3분의 2는 미국 이외를 중심 축으로 한다. 우리나라 일본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영역에 있다"면서 "냉전이 종결 국면으로 접어든 이후, 미국의 경제 상황은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다. 평화기, 만용기, 쇠퇴기, 그리고 '우크라이나 함정'에 빠진 시기가 바로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냉전 이후에는 미국이 일극(一極) 체제로 경제를 주도했지만, 미국이 혼란기를 겪는 동안 러시아와 중국은 빠르게 성장했다"라며 "미국과 나토의 팽창, 그리고 러시아의 성장은 러시

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 원인이 됐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이란 문제까지 합쳐지며 불확실성은 극대화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객관적이고 다양한 시각을 확보하는 것이 감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람은 각자 나르시시스트(자기 자신을 사랑하거나, 훌륭하다고 여기는 사람)적인 면모를 갖는다. 내 스스로가 자랑스럽고, 내가 속한 가족이나 조직이 자랑스럽다.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어렵다"라며 "다양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조직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의 상황까지 파악할 수 있을 때야말로 각자가 속한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